

문화의 다양성이 주는 선교적 의미

- 유은영 선교사 -

현 YWAM 인도네시아 선교사, 2003년 9월 이후 YWAM 말레시아 페낭베이스에서
sbs(귀납적성경공부학교)간사예정, 동남아권에 sbs 사역 개척예정.

저는 5년2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였던 싱가포르의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작지만 다국적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와 타밀어 공식어로 사용합니다. 동양의 작은 섬 나라중에 하나이지만, 동양권이면서 서양의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인 인도네시아는 큰 섬나라로, 회교국이지만 아랍회교와 성격이 많이 다르고 다양한 종족,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국가마다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가 있듯이 선교지로 나가면, 한국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동양권과 서양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접했던 문화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차가다, 뜨겁다' 라는 말로 표현해서 차가운 문화, 따뜻한 문화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차가운 문화를 대표적으로 뽑자면 독일문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독일문화는 비평하고, 사실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 하며, 논쟁하는 것을 좋아 합니다.

차가운 문화권의 나라는 북유럽, 북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차가운 문화에서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며, 조직이 구조화되어 있고, 관계보다는 일 중심적이며, 감정으로부터 사고 또는 정보를 분류합니다.

논리의 논쟁은 개인과 동일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표현문화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토론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로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제가 그들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문화권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무엇이든지 혼자서야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다른 문화이지만 그 시간이 정말 귀했고 저의 삶의 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문화의 나라로는 아시아, 이탈리아, 아프리카, 남아공, 남미 그리고 중동지역을 말합니다. 따뜻한 문화는 관계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이라, 모든 사람의 감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고, 감정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

습니다.

감정은 즉 개인인격과 동격으로 봅니다.

선교지의 현실을 나누자면, 서양인과 동양인 선교사의 국적을 떠나서 다른 사람위에 서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양권 선교사들 사이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돌려서 이야기 하며, 연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에베소서 4:1-3 & 29-32을 보면 , 한 몸으로 부르심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화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서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대화 할까요?

먼저 이해하기 위해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개발 하십시오.

사역지, 집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권면합니다.

이미 선교는 두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문화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로써 차가운 문화권은 따뜻한 문화를 따뜻한 문화권 차가운 문화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관점을 넓혔으면 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